

C-14. Forced eruption을 통한 치은 연하 파절된 상악 증절치의 수복

정지윤, 석화숙

서울 위생 치과병원 치주과

연구배경

상악 전치부는 외상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구강 내 부위이다. 외상으로 인한 상악 전치부 파절을 주소로 내원하는 경우는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이를 수복할 때에는 특히 심미성이 요구된다. 현재 치은 연하로 파절된 치아의 가장 쉽고, 흔한 치료는 임플란트 혹은 보철을 동반한 발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치 후에 예상되는 연, 경조직의 상실은 환자에게 심미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상악 전치부의 발치는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한다. 특히 악골 성장기에 시행된 임플란트 혹은 보철은 시술 후 악골의 성장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 시기에 치은 연하 파절된 치아를 보존하는 것은 유일한 치료일 수 있다.

치아의 상실을 피하고 biologic width를 재확보하여 형태적, 기능적인 수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써 surgical crown lengthening, surgical intra-alveolar transplantation, forced eruption 등이 있다. 이 중 surgical crown lengthening은 건전한 주위 조직의 손실을 동반하게 되므로 비심미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고, intra-alveolar transplantation은 장기간의 안정성을 보고하는 연구 결과가 부족한 상태이다. 반면에, forced eruption은 쉽게 시행할 수 있는 교정적 치아 이동으로써, 심미적인 부위에도 적용가능하며, 유지가 불가능했던 치아를 수복 가능하게 하는 안정적이면서 보존적인 대체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

연구방법 및 재료

상악 증절치의 치은 연하 파절된 치아를 발치하는 대신, forced eruption을 통해 biologic width를 재확보하여 수복한 증례이다. Bracket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화시킨 resin wire splint 장치와 elastic thread를 이용하였으며, supracrestal fiberotomy를 동반한 rapid forced eruption을 시행하여 forced eruption 후 surgical procedure를 최소한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상악 전치부의 forced eruption을 통한 biologic width 확보 및 수복은 만족할 만한 형태적, 심미적 결과를 얻었으며 단기간 관찰 결과이기는 하나, 안정성 있게 유지되었다.

결론

술 전 정확한 진단과 case selection을 통한다면, forced eruption은 치아와 주위 치주 조직을 유지하고, 심미적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예견성있는 술식으로, 임플란트 혹은 보철을 동반한 발치에 대해 보존적 대체 방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